



4면

코로나19로 무너진 시민의 마음 치유
전주시 마음치유대행본 본격 가동

전주매일

2020년 6월 3일 수요일 (윤 4월 12일)

제254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차 천변 2길 6번지



‘번개 세차 출장 서비스 자활사업단 설립 협약’ 전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번개 세차 출장 서비스’ 자활사업단 설립 업무협약식이 열린 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관계자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정읍지역자활센터 이기찬 센터장, 전북광역자활센터 이승철 센터장,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송호기 부사장, 전주지역자활센터 고은희 센터장. (관련기사 6면)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전자서명법 국무회의 의결

생체인증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 · 관련 산업 활성화 탄력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전자서명법’은 ‘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데에서 나아가,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연구자가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연구실 안전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에 인하여서 발생하는 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서 나아가,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한층 더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국내·외적으로 드론의 안전위협, 신종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 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파법’, 통신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보신호제’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의결됐다.

“정부, 교육개혁 컨트롤타워 없어”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임기종료 앞두고 소회
고교 무상교육 정부지지·수능후퇴 등 아쉬움토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위기가 화목(和穆)해 졌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 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잔여 임기를 20여 일 앞두고 소회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오는 30일자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2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와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분담비율(국가 42.6%, 교육청 47.5%, 지자체 9.9%)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있다. 이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기 교육성과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이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대화수화능력시험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후퇴했

다고 말했다. 그 주된 이유로 기득권의 편향주의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관료주의적 사고방식,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 등을 들었다. 이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 방안으로 한국사, 영어 외 외국어에 대한 절대평가 시행, 자사고,특목고 등에 대한 점진적 폐지,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화 등을 꼽았다.

김승환 교육감의 지난 2년 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 위상 강화다. 8년 만의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의 간담회 추진,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이다. 또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이, 교육자치 실현분야로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권한 이양 초빙교사의 임용 세부사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다. 학교자치 실현분야로는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포괄적 규정을 꼽는다. 이와 더불어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있다. 연구단의 추진 배경은 2018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인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속에 대입제도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수시정

시 통합을 위한 단일 전형시기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변경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와 발전 방안, ▲고교학점제와 평가체제 변화에 따른 학생부 신뢰성 구축 방안, ▲대입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 3기 교육정책에 있어 국가 사무의 지방사무 이권이 매우 적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수업에서 등교 수업으로의 순차적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모니터링단 구성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 국토부 건축자산 가치발굴 지자체 공모 선정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가 공모한 ‘2020년 건축자산 가치 발굴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는 지난 5월 8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했

고, ▲건축자산 정보 구축 부문 ▲건축자산 활용부문, 총 2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했다. 도는 이 가운데 건축자산 정보 구축 부문에 선정되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의 기본현황 등 체계적인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기록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극복 정읍 내장산 초록단풍

음이온 힐링콘서트

2020. 6. 13(토) 16:30
정읍 내장산 천하대장군 주차장 (매표소에서 내장사 방향 500m 부근)

조형조

재현/김승경

송기열

신계영

양혜영

박희진

열두달

이타리

- **코로나 19 대응**
 - 공연 관람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정보수집동의서 작성 및 발열체크로 공연시작 최소 30분전 도착
 - 관람시간 접촉은 최소화
- **입장객 안내사항**
 - 14시부터 공연 관람자 내장산 국립공원 무료 입장 가능
 - (구)내장산 관광호텔 부지내 주차장 무료이용(행사장까지 도보 10분)
 - 무료 관람(선착순 입장)
- **문의처** : 정읍시 성장전략실 (063)539-6881~2

| 후원 |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대한불교 조계종 내장사

| 주최 · 주관 | 전주 MBC